

# “헌혈, 10분간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본보 2023 캠페인 ‘아름다운 사회 함께 만들어요’

●하나님의 교회 ‘유월절사랑생명사랑헌혈릴레이’

### 179명 헌혈...6시간 걸쳐 혈액 7만1천600ml 기증 김동수 혈액원장 “생명 나눔에 동참한 이들에게 감사”

“헌혈을 통해 생명 존중 의식과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널리 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일 광주 남구 방림동 광주방림 하나님의 교회,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제118차 헌혈릴레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신자들과 관계자로 북적였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관하고 광주전남 혈액원이 후원한 이번 헌혈 행사는 유월절을 맞아 고행화 진행과 헌혈인구 감소로 혈액 수급난이 가중되는 사회 문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개회사, 축사, 헌혈 순이었으며 최병은 하나님의 교회 목사, 김동수 광주전남혈액원장, 고미숙 대한간호협회 광주시간호사회 사무처장 등 400여명의 인원이 참가했다.

교회 신자 및 가족들은 2층 로비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최병은 목사로부터 헌혈의 필요성을 들었다. 일부 참가자들도 직접 만든 피켓을 들며 헌혈의 중요함을 알리는 데 함께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문진표를 작성했다. 작성을 마친 이들은 혈액원 관계자에게 자신의 혈액과 최근 여행지, 전날 먹은 음식 등을 말하며 헌혈 가능 여부를 살폈다.

복용 중인 약과 병력으로 헌혈을 할 수 없는 이들은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진표 작성과 상담을 마친 이들은 광주전남혈액원에서 준비한 5대의 헌혈차량에 탑승해 책임간호사와 2차 상담을 진행한 후 헌혈을 시작했다.

차량 내부에는 헌혈을 할 수 있는 헌혈기계와 침상 4대가 각각 준비됐고,

차량 밖으로는 헌혈에 참가한 신자 및 가족들이 자신의 순서가 오기를 기다리며 줄지어 서 있었다.

처음 헌혈에 도전하는 임서영(38·여)씨는 “이전에는 선단공포증이 있어서 헌혈을 못했지만 남편이 수술했을 당시 주변인들의 헌혈증을 통해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게 됐다”며 “당시 큰 감사함을 느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컨디션도 조절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헌혈을 마친 인원들은 과자와 음료를 마시면서 ‘앞으로도 헌혈을 꾸준히 해야겠다’, ‘몸에 힘이 빠지지만 웬지 모르게 뿌듯함이 느껴진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후식을 취했다.

최병은 하나님의 교회 목사는 “성경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사랑

이고, 그 중 가장 큰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라며 “우리 스스로가 생명에 대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생명 존중과 사랑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이번 헌혈릴레이는 179명이 참가해 총 6시간 동안 오전과 오후 2번에 걸쳐 혈액 7만1천600ml가 기증됐다.

김동수 혈액원장은 “헌혈은 생명을 나누기 위해 10분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며 “이웃사랑 실천은 마음만 먹고 행동으로 실행하기에 어렵지만 이렇게 유월절을 맞아 생명 나눔에 참여해주신 신자 및 가족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지난 5일 오전 광주 남구 방림동 광주방림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헌혈릴레이’에 참가한 신자 및 가족 등 400여명이 모여 생명 나눔을 위한 헌혈 격려 응원을 펼치고 있다.

**오늘의 날씨**

☀ 해돋이 05:18 해질 19:45  
🌙 달돋이 23:13 달짐 07:57

광주	맑음	17/28
목포	맑음	17/24
여수	맑음	18/25
나주	맑음	16/27
완도	맑음	17/26
구례	맑음	15/29
강진	맑음	16/27
해남	맑음	15/25
장성	맑음	15/27
보성	맑음	15/26
순천	맑음	17/29
영광	맑음	16/26
진도	맑음	16/24
흑산도	맑음	17/24
고흥	맑음	15/26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30** 마트 챙기세요  
👕 **빨래 50** 야외건조 좋아요  
🚗 **세차 50** 세차하기 좋은날  
🏃 **운동 80** 준비운동은 충분히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0.5	0.5-0.5
남부 먼바다(북)	0.5-1.5	0.5-1.5
남부 먼바다(남)	0.5-1.5	0.5-1.0
남해 앞바다	0.5-1.0	0.5-0.5
서부 먼바다(동)	0.5-1.5	0.5-1.0
서부 먼바다(서)	0.5-1.5	0.5-1.0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목포	04:36	09:44
여수	11:08	05:16
녹동	23:57	17:06
노동	11:41	06:29
노동	---	18:04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6월 8일(목)	☀ (19/28)	☀ (19/28)	☀ (21/32)	☀ (20/29)	☁ (19/25)
9일(금)	☁ (18/28)	☁ (18/28)	☁ (20/28)	☁ (17/30)	☀ (19/26)
10일(토)	☁ (18/28)	☁ (18/28)	☀ (19/27)	☀ (18/29)	☁ (19/27)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 동구,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운영

광주 동구는 “최근 성공적인 창업을 이끌어 나갈 ‘소상공인 성장 지원 컨설팅’을 갖고 맞춤형 경영 컨설팅 운영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위촉식에서는 창업·경영, 홍보·마케팅, 청년·창업, 세무·회계, 외식업 등 분야별 전문 경력자 10명을 컨설턴트로 위촉했다.

이들은 동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경영 컨설팅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태호기자

## ‘지산동-조선대 우회도로’ 9일 개통

주민 숙원사업 결실 ‘민·관·학 상생 모델’ 구현 성과

광주 동구 지산동에서 조선대학교 교내를 관통하는 왕복 2차로 도로 ‘지산동-조선대 우회도로’가 오는 9일 개통된다.

6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해당 우회도로는 지산동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시설 개선 등을 목표로 지난해 4월 착공했다.

사업비 42억6천만원이 투입돼 총연장 545m, 폭 10m 규모의 왕복 2차선 도로가 1년여만인 지난달 준공됐다.

동구는 조선대 교내를 통한 도심 접근성이 향상돼 총장로와 지산유원지 등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동구는 2021년 조선대와 여러차

레 실무 협의를 거쳐 같은 해 3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조선대 교내 부지 5천303㎡에 대한 무상사용을 허가받았고 사업비 중 50%에 대한 투자도 유치했다.

동구는 개통 당일 조선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개통식을 갖고 내·외빈 및 주민 등 200여명과 함께 ‘조선대 우회도로 첫걸음 함께하기’ 건강 걷기 행사도 갖는다. /안태호기자

## 市교육청, 독일서 ‘5·18, 평화통일’ 외치다

글로벌리더 평화통일 프로그램...교과 2학년 18명 참여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독일에서 5·18 홍보와 통일 의지를 다지는 ‘2023년 글로벌 리더 평화통일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글로벌 리더 평화통일 현장체험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8명이 참가했다.

참가 학생들은 ▲독일 5·18 기념사업회와 함께 오월정신 홍보 ▲라이프치히 발헬름 오스트발트 김나지움 고등학교 과의 교류 ▲독일 분단의 상징, 브란덴부르크문 광장에서 통일을 춤추다 공연 ▲독일 통일 역사적 장소 현장체험 ▲독일

학생들의 정치교육 현장인 유테인 박물관에서의 정치교육 등의 시간을 보냈다. 학생들은 프랑크푸르트 Brockhaus-Brunnen 광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5·18 노래극 공연을 하면서 오월 정신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했다. 또 독일 분단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문 광장에서 아리랑에 맞춰 ‘통일을 춤추다’ 공연을 펼치면서 우리나라의 통일을 염원하고 통일의 의지를 다졌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체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에도 보탬이 될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다이어기자



- 2022년 제주도 워크샵 -

### 창조클럽 아카데미 3기 동창회가 광주매일신문 창사 3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3기 동창회장 및 동창회원 일동 -